

기 관	컨슈머인사이트	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문 의	김민화 연구위원	연 락 처	02) 6004-7643
배 포 일	2024년 11월 4일(월) 배포	매 수	총 5매

경주시, 여행만족도 전국 기초시군 중 1위

컨슈머인사이트 '연례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' 리포트 ⑤

- 지난 3년간 4~6위 유지하던 올해 처음으로 1위에
- 볼거리·살거리에서 전국 1위...치안·위생 평가도 높아
- 산청, 2위로 한 계단 내려왔고, 평창 2계단 올라 3위
- 서귀포시·제주시, 2년 연속 하락해 중위·중하위권으로
- 여행자원 뛰어나도 스트레스 높은 곳은 만족도 낮아

<연례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 리포트>

- ① [여행비 7 배 이상 드는데...해외여행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는?](#)
- ② [여름휴가여행 만족도, 강원 1위 등극...제주 7위 추락](#)
- ③ [가심비 1 위, 베트남의 비결은?](#)
- ④ [추락하는 제주관광, 만족도보다 심각한 '가심비'](#)
- ⑤ [경주시, 여행지 만족도 전국 기초시군 중 1 위](#)

○ 경북 경주시가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. 이어 경남 산청군, 강원 평창군, 전남 순천시, 강원 고성군 등 5개 시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톱5에 올랐다. 반면 과거 상위권을 놓치지 않던 제주도의 2개 시(제주시, 서귀포시)는 2년 연속 하락해 각각 중위·중하위권으로 전락했다.

□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년 9월 2만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'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'에서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(6월~8월)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077명에게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, 그 지역에 '얼마나 만족했는지(만족도)'와 '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(추천의향)'를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기초시군별로 비교했다. 광역시의 기초단체(구)는 제외하고 광역도 산하 기초시군만 대상으로 했다.

□ 조사에서는 만족도, 추천의향과 별도로 각 지역의 '여행자원 매력도'와 '여행환경 쾌적도'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평가토록 해 각 기초시군별 종합만족도 등락 원인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했다. 세부

비교 항목은 '여행자원 매력도' 측면 5개(△먹거리 △볼거리 △유희거리 △놀거리 △살거리)와 '여행환경 쾌적도' 측면 5개(△물가·상도의 △교통 △편의시설 △청결·위생 △안전·치안)였다.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,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 www.bigdata-culture.kr에서도 공개되고 있다.

■ 톱5, 순위만 달라지고 작년 그대로

- 올해 비교 대상에 오른 54개 시군(사례수 60 미만 제외) 중 경북 경주시가 745점(1000점 만점)으로 1위에 올랐다. 경남 산청군과 강원 평창군이 나란히 742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이어 전남 순천시(741점, 4위), 강원 고성군(740점, 5위)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.
- 전남 신안군과 강원 영월군이 동점(737점)으로 공동 6위가 됐고, 그 다음은 충북 단양군(735점, 8위)이었다. 이어 경북 문경시, 강원 인제군, 전남 진도군 3곳이 732점으로 공동 9위였다.
- 최상위권의 순위 변동은 크지 않았다. 작년 톱5 시군이 순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톱10도 큰 변화가 없었다. 1위~공동 9위 11곳 중 작년 사례수 미달로 제외됐던 신안군(6위)이 올해 새로 진입했고, 진도군(48위→공동 9위)과 문경시(33위→공동 9위)의 상승이 돋보였다. 반면 중위·하위권에서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.
-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인 지역으로는 경북 안동시(42위→공동 12위), 경기 양평군(49위→14위)과 가평군(37위→24위)이 있다. 반면 강원 태백시(10위→39위), 경남 남해군(9위→43위)과 밀양시(33위→52위)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.

[그림]2024년 국내 여름휴가여행 종합만족도(기초시·군)

사·군	광역시·도	순위		점수 [1,000점만점]	
		24년	23년 대비	24년	23년 대비
경주시	경북	1	▲4	745	-8
산청군	경남	2	▽1	742	-27
평창군	강원	2	▲2	742	-14
순천시	전남	4	▽1	741	-19
고성군	강원	5	-	740	-13
신안군	전남	6	NEW	737	NEW
영월군	강원	6	▽4	737	-25
단양군	충북	8	▲13	735	+9
문경시	경북	9	▲24	732	+19
인제군	강원	9	▽2	732	-20
진도군	전남	9	▲39	732	+41
안동시	경북	12	▲30	731	+33
울진군	경북	12	▲3	731	+1
양평군	경기	14	▲35	729	+40
정선군	강원	15	▽4	726	-14
강릉시	강원	16	▽2	722	-15
거제시	경남	17	▲1	720	-8
속초시	강원	18	▲4	718	-7
삼척시	강원	19	▲3	714	-11
하동군	경남	20	▽9	713	-27
춘천시	강원	20	▲18	713	+9
동해시	강원	22	▽11	712	-28
포천시	경기	22	▲6	712	-7
가평군	경기	24	▲13	710	+4
원주시	강원	25	▽17	707	-42
서귀포시	제주	26	▽10	706	-23
양양군	강원	27	▽8	705	-22
54개시·군 평균				704	-11
여수시	전남	28	▲2	703	-14
무주군	전북	29	▲7	702	-5
목포시	전남	30	▽3	701	-20
포항시	경북	30	▲10	701	-1
군산시	전북	32	▲12	698	+5
횡성군	강원	32	▽13	698	-29
홍천군	강원	34	▽18	697	-32
전주시	전북	34	▽8	697	-26
통영시	경남	36	▽14	694	-31
제주시	제주	37	▽9	693	-26
사천시	경남	37	▲9	693	+1
태백시	강원	39	▽29	692	-49
제천시	충북	40	▽5	689	-21
태안군	충남	41	▲3	685	-8
괴산군	충북	42	▲11	684	+3
보령시	충남	43	▲9	680	-3
남해군	경남	43	▽34	680	-64
부안군	전북	45	▽4	679	-20
공주시	충남	46	-	678	-14
용인시	경기	47	▲4	673	-13
천안시	충남	48	▲8	671	+38
서천군	충남	48	NEW	671	NEW
영덕군	경북	50	▽7	667	-29
충주시	충북	51	▽1	665	-23
밀양시	경남	52	▽19	658	-55
창원시	경남	53	▲1	649	-30
청주시	충북	54	▲3	633	+7

Q. 여름휴가 목적으로 다녀오신 여행지는 어디입니까?
 Q. 전반적으로 봤을 때 '주 여행지'에 대해 여행지로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 Q. '주 여행지'을(를) 여름휴가 여행지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?
 주1) Base : 여름휴가 기간 1박 이상 국내여행자, 사례수는 '24년 17,077명, '23년 17,281명
 * NEW는 2023년에 사례수 60미만으로 순위권에 포함되지 않아 순위 Tracking이 불가능함.
 * 출처 : 컨슈머인사이트 '연례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'

■ 경주시, 여행환경 쾌적도 평가 급상승

○ 경주시는 유서 깊은 국내 최고 여행지답게 만족도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. '21년 4위, '22년 6위에 이어 작년 5위를 찍더니 올해 처음으로 1위가 됐다. 여행자원 매력도에서 최상위권(2위)이었고 그 중에서도 볼거리와 살거리는 1위였다.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다소 처진 10위였으나 전년(38위)에 비해서는 급상승해 1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. 안전·치안, 청결·위생 항목의 평가가 크게 높아진 데 힘입었다.

○ 산청군은 올해 만족도 점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(-27점)하며 경주에 1위를 내줬다. 한 계단 하락해 2위가 됐지만 볼거리, 살거리, 물가·상도의, 교통환경 등 다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힐링 관광지로서의 강점을 과시했다(참고. [직접 가본 사람이 평가한 여행만족도 '경남 산청군' 첫 1위](#) '23.10.27). 3위 평창군은 썰거리에서 1위였고 볼거리, 놀거리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나타냈다. 4위 순천시는 먹거리와 볼거리에서, 5위 고성군은 썰거리 만족도에서 탁월했으나 두 곳 모두 여행환경 쾌적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다.

■ 서귀포시·제주시, 공통 약점은 '물가·상도의' 스트레스

○ 상위 11개 시군(공동 9위까지) 중 강원도 소재 시군이 4곳, 전남이 3곳, 경북이 2곳이었으며, 경남과 충북이 1곳씩이었다. 강원도는 작년 톱10 중 6곳을 차지했던 것만은 못해도 여전히 다수였고, 전남은 작년 1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.

○ 국내 대표 여름휴가지인 제주도의 하락은 충격적이다. 제주도의 2개 기초 지자체 중 서귀포시는 올해 중위권(26위)으로 밀려났고, 제주시(37위)는 중-하위권의 경계선에 섰다. '22년만 해도 각각 2, 3위로 최상위권이었으나 작년 큰 폭 하락(16위, 28위)한 데 이어 올해 또 추락했다. 같은 기간 제주도 여행만족도가 16개 광역 시도 중 1위→4위→7위로 추락한 것과 일맥상통한다(참고. [여름휴가여행 만족도, 강원 1위 등극...제주 7위 추락](#) '24.10.08).

○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여행자원 매력도에서 각각 3위, 4위로 최상위권을 지켰으나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50위, 43위로 바닥에 가까웠다. 특히 물가·상도의 항목 순위는 둘 다 50위권 밖으로 처졌다. 천혜의 여행자원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 최대 원인은 물가·상도의이다. 이는 수년간 여러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임에도 개선은커녕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.

■ '물가·상도의' 부정 평가는 최하위권 지름길

- 상위권 시도의 지리적 특성을 분류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안보다 내륙 지역이 우세했다. 톱11 중 내륙 지역이 6곳(산청·평창·영월·단양·문경·인제), 일부 해안을 포함한 내륙 지역이 2곳(경주·순천), 해안 지역이 3곳(고성·신안·진도)이었다.
- 여행자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 키워드가 '바다'임에도 내륙 지역이 우세했음을 고려하면 좋은 자원이 높은 만족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. 즉, 여행자원이 아무리 좋아도 찾아온 여행자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준 곳은 종합만족도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다. 특히 '물가·상도의'에서의 부정적 평가는 최하위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. 식비마저 줄이는 초초 긴축 여행에서 먹거리에 대한 실망은 치명적이다. 여행자의 기대는 다소 낮추고, 부정적 평가 원인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(참고. [뛰는 물가에 식비 줄이는 여행, 바가지 논란 필연적](#) '24.09.25).

컨슈머인사이트는 **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**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**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**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**100%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**을 가진 조사 플랫폼 '국대패널'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년 9월에 여행소비자 2만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'연례 여름휴가여행만족도조사'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. 매년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leisure-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, 2017-2023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[리포트 다운로드 받기](#))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저작권은 (주)컨슈머인사이트에 있으며 언론사의 직접 인용 보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 밖의 인용 및 재배포는 컨슈머인사이트와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.

For-more-Information

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/Ph.D	kimmh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43
현소리 대리	hyunsr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58